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0호 [주제 제25659호] 주제 106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주체조선의 불폐의 강대성과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을 온 세상에 힘 있게 과시하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전복케 하는 위해 한 전략무기들의 자랑찬 성공록을 렌일 펴드리며 만리마대전군을 다그치고 있는 천만민의 영웅적투쟁을 힘차게 고무추동하고 있는 조국의 장한국방과학전사들은 우리당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케트를 새롭게 개발하고 시험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혁혁한 위훈을 창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리병철동지, 김락겸동지, 김정식동지, 장창하동지, 정승일동지, 전일호동지가 동행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주체적로케트무역강화와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을 위하여 위대한 사색의 낫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에 국방과학연구부문에 적합성을 비롯한 해상과 지상의 임의의 바늘귀같은 개별적 목표물을 정밀타격할수 있는 우리식 탄도로케트를 개발할때 대한 연구동자를 주시고 여러차례 방향과 방도도 가르쳐주시며 크나큰 로고를 바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략적구상과 의도를 기어이 판철할 비상한 혁명적열의로 실장을 끊이며 만리마속도로 내달리고있는 우리의 미더운 국



되었다.

또한 보다 정밀화된 말기유도체계에 의한 재돌입구간에서의 초정밀을 도정확성을 확증하였으며 각이한 저항조건에서 새로 개발한 리데식 자행발사대차의 주행특성과 자동화된 발사준비 공정의 특성을 완전히 확증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케트의 성공적시험발사를 보시면서 우리 동무들이 또 하나 큰것을 해냈다고, 태양절승리의 열병식 광장에 쳐음으로 자기의 자태를 드러냈던 이 탄도로케트는 마치 명사수가 저격수보총으로 목표를 맞히는 것만 같다고, 저정도의 명중정확성이 면적들의 눈깔도 파먹겠다고, 우리 당의 깊은 관심과 직결적영도에 의해 계속 승리적전진만을 이룩해가고 있는 국방과학연구부문이 이제는 세

계적인 첨단국방과학기술들을 마음먹은대로 우리식으로 이루어가고있다고, 우리당은 이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지휘소에 오르시여 시험발사계획에 대하여 청취하시고 탄도로케트발사명령을 내리시였다.

임의의 지역의 적대상물들을 초정밀타격 할수 있는 새형의 정밀유도탄도로케트의 기술적지표들을 확증하며 각이한 전투환경속에서 새롭게 설계제작한 무한궤도식자행발사대차의 유행민음성을 겸토하는데 목적을 둔 이번 시험발사는 조종전투부의 말기유도단계까지의 세밀한 원격판측을 위하여 중동사거리사격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능동비행구간에서 조종날개가 있는 전투부를 장착한 탄도로케트의 비행안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중간비행구간에서 소형연분사발동기에 의한 속도교정 및 차세안정화계통의 정확성이 재확증





# 당조직들은 정치사상사업의 위력으로 모내기전투장들이 들끓게 하자

## 혁신의 불길을 세자게 지펴주는 위력한 송풍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장원들속에서 사상교양  
사업을 활발히 벌려 그들이  
모내기전투에 적극 투쳐나서  
게 하여야 합니다.』  
해군군부의 협동농장들에서  
모내기전투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배천군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높아가고 있다. 이것은 대중의 심  
장에 혁신의 불길을 세자게 지펴  
주는 이곳 군당위원회의 총동기적  
역할과 뛰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

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적절파  
지도에는 주목되는 점들이 있다.

직접 경제선동의 북채를 쥐고

그 어느 사업에서나 그러하듯  
이 당면한 모내기전투에서 성과  
를 거두자면 대중의 정신력을 최  
대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  
해 모내기전투작전은 세우면서  
군당위원회가 선차적인 힘을 넣  
은것이 바로 이 문제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  
을 통한 선전선동력을 농업선전  
에 흥미롭게 활용해 농민들을  
군당일군들이 적극 경제선동의  
복지를 퀘리로 한 것이다. 군당  
일군들이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정치사업  
의 실효성을 높이기 있다는  
것을 실증증명해 주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기동에

출선풍대, 내행에 출선풍대를 비  
롯한 선전선동력을 농업선전  
에 흥미롭게 활용해 농민들을  
제회를 세웠다. 이 제회운정은

군당일군들이 적극 경제선동의  
복지를 퀘리로 한 것이다. 군당  
일군들이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정치사업  
의 실효성을 높이기 있다는  
것을 실증증명해 주었다.

얼마전 5·0여명의 군당일군  
들이 배낭을 메고 농산물통농장  
으로 나갔다.

휴식시간이 되자 군당선전선  
장에서 군당위원회 부위원장과  
동무들이 품을 들어가고 각식없는  
정치사업을 하였는데 진실성이  
감동을 받았다. 군당책임일군  
의 호소가 그들의 심금을 열  
마나 뜨겁게 웃웠다는 것은  
그후 주민들은 새차게 일이 어떤  
진 사실이 잘 보여준다. 며칠동  
안에 400여명의 녀여친들이  
군현명사적교양실전설을 풀실

금수간체양궁전을 살피 우르르  
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  
아말로 나리의 발복을 펼칠지  
농사꾼들이 언제나 알고 살아야  
할 고려한 지침이며 좋은 땅,

나쁜 땅 가령이 없이 만족년을  
나오오는 비결도 유용한 점들이  
있다고 삶과 아끼는 농장원  
의 철철한 농백으로 절정을 이  
룬 작품은 모두의 눈물을 짜릿  
하게 쳐서였다.

군당일군들의 예술선동은 커  
나가고 있다. 이것은 대중의 심  
장에 혁신의 불길을 세자게 지펴  
주는 이곳 군당위원회의 총동기적  
역할과 뛰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

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적절파  
지도에는 주목되는 점들이 있다.

직접 경제선동의 북채를 쥐고

한편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긴  
장하면서 차제문제가 해결되고 공  
사축도 대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정치사업  
의 실효성을 높이기 있다는  
것을 실증증명해 주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  
부임군들이 예술선동을 위한 준  
비사업에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예술선  
동활동을 벌리는 기본부적이 농  
장원들을 보다 각성시키고 분발  
시킬때에는 파악해 주어야  
하는 종목들이 그들의 심금을 열  
마나 뜨겁게 웃웠다는 것은  
그후 주민들은 새차게 일이 어떤  
진 사실이 잘 보여준다. 며칠동  
안에 400여명의 녀여친들이  
군현명사적교양실전설을 풀실

을 풀어놓았던 것이다.

모내기전투작전과 지도에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힘을 냉고  
놓았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모  
내기 전투작전과 함께 농사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처해 주어야  
하는 문제를 짚어보자.

군당위원회에서는 군기동에

출선풍대, 내행에 출선풍대를 비  
롯한 선전선동력을 농업선전  
에 흥미롭게 활용해 농민들을  
제회를 세웠다. 이 제회운정은

군당일군들이 적극 경제선동의  
복지를 퀘리로 한 것이다. 군당  
일군들이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정치사업  
의 실효성을 높이기 있다는  
것을 실증증명해 주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  
부임군들이 예술선동을 위한 준  
비사업에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예술선  
동활동을 벌리는 기본부적이 농  
장원들을 보다 각성시키고 분발  
시킬때에는 파악해 주어야  
하는 종목들이 그들의 심금을 열  
마나 뜨겁게 웃렸다는 것은  
그후 주민들은 새차게 일이 어떤  
진 사실이 잘 보여준다. 며칠동  
안에 400여명의 녀여친들이  
군현명사적교양실전설을 풀실

을 풀어놓았던 것이다.

모내기전투작전과 지도에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힘을 냉고  
놓았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모  
내기 전투작전과 함께 농사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처해 주어야  
하는 문제를 짚어보자.

군당위원회에서는 군기동에

출선풍대, 내행에 출선풍대를 비  
롯한 선전선동력을 농업선전  
에 흥미롭게 활용해 농민들을  
제회를 세웠다. 이 제회운정은

군당일군들이 적극 경제선동의  
복지를 퀘리로 한 것이다. 군당  
일군들이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정치사업  
의 실효성을 높이기 있다는  
것을 실증증명해 주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  
부임군들이 예술선동을 위한 준  
비사업에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예술선  
동활동을 벌리는 기본부적이 농  
장원들을 보다 각성시키고 분발  
시킬때에는 파악해 주어야  
하는 종목들이 그들의 심금을 열  
마나 뜨겁게 웃렸다는 것은  
그후 주민들은 새차게 일이 어떤  
진 사실이 잘 보여준다. 며칠동  
안에 400여명의 녀여친들이  
군현명사적교양실전설을 풀실

을 풀어놓았던 것이다.

모내기전투작전과 지도에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힘을 냉고  
놓았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모  
내기 전투작전과 함께 농사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처해 주어야  
하는 문제를 짚어보자.

군당위원회에서는 군기동에

출선풍대, 내행에 출선풍대를 비  
롯한 선전선동력을 농업선전  
에 흥미롭게 활용해 농민들을  
제회를 세웠다. 이 제회운정은

군당일군들이 적극 경제선동의  
복지를 퀘리로 한 것이다. 군당  
일군들이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정치사업  
의 실효성을 높이기 있다는  
것을 실증증명해 주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  
부임군들이 예술선동을 위한 준  
비사업에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예술선  
동활동을 벌리는 기본부적이 농  
장원들을 보다 각성시키고 분발  
시킬때에는 파악해 주어야  
하는 종목들이 그들의 심금을 열  
마나 뜨겁게 웃렸다는 것은  
그후 주민들은 새차게 일이 어떤  
진 사실이 잘 보여준다. 며칠동  
안에 400여명의 녀여친들이  
군현명사적교양실전설을 풀실

을 풀어놓았던 것이다.

모내기전투작전과 지도에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힘을 냉고  
놓았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모  
내기 전투작전과 함께 농사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처해 주어야  
하는 문제를 짚어보자.

군당위원회에서는 군기동에

출선풍대, 내행에 출선풍대를 비  
롯한 선전선동력을 농업선전  
에 흥미롭게 활용해 농민들을  
제회를 세웠다. 이 제회운정은

군당일군들이 적극 경제선동의  
복지를 퀘리로 한 것이다. 군당  
일군들이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정치사업  
의 실효성을 높이기 있다는  
것을 실증증명해 주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  
부임군들이 예술선동을 위한 준  
비사업에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예술선  
동활동을 벌리는 기본부적이 농  
장원들을 보다 각성시키고 분발  
시킬때에는 파악해 주어야  
하는 종목들이 그들의 심금을 열  
마나 뜨겁게 웃렸다는 것은  
그후 주민들은 새차게 일이 어떤  
진 사실이 잘 보여준다. 며칠풍  
안에 400여명의 녀여친들이  
군현명사적교양실전설을 풀실

을 풀어놓았던 것이다.

모내기전투작전과 지도에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힘을 냉고  
놓았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모  
내기 전투작전과 함께 농사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처해 주어야  
하는 문제를 짚어보자.

군당위원회에서는 군기동에

출선풍대, 내행에 출선풍대를 비  
롯한 선전선동력을 농업선전  
에 흥미롭게 활용해 농민들을  
제회를 세웠다. 이 제회운정은

군당일군들이 적극 경제선동의  
복지를 퀘리로 한 것이다. 군당  
일군들이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정치사업  
의 실효성을 높이기 있다는  
것을 실증증명해 주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  
부임군들이 예술선동을 위한 준  
비사업에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예술선  
동활동을 벌리는 기본부적이 농  
장원들을 보다 각성시키고 분발  
시킬때에는 파악해 주어야  
하는 종목들이 그들의 심금을 열  
마나 뜨겁게 웃렸다는 것은  
그후 주민들은 새차게 일이 어떤  
진 사실이 잘 보여준다. 며칠풍  
안에 400여명의 녀여친들이  
군현명사적교양실전설을 풀실

을 풀어놓았던 것이다.

모내기전투작전과 지도에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힘을 냉고  
놓았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모  
내기 전투작전과 함께 농사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처해 주어야  
하는 문제를 짚어보자.

군당위원회에서는 군기동에

출선풍대, 내행에 출선풍대를 비  
롯한 선전선동력을 농업선전  
에 흥미롭게 활용해 농민들을  
제회를 세웠다. 이 제회운정은

군당일군들이 적극 경제선동의  
복지를 퀘리로 한 것이다. 군당  
일군들이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정치사업  
의 실효성을 높이기 있다는  
것을 실증증명해 주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  
부임군들이 예술선동을 위한 준  
비사업에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예술선  
동활동을 벌리는 기본부적이 농  
장원들을 보다 각성시키고 분발  
시킬때에는 파악해 주어야  
하는 종목들이 그들의 심금을 열  
마나 뜨겁게 웃렸다는 것은  
그후 주민들은 새차게 일이 어떤  
진 사실이 잘 보여준다. 며칠풍  
안에 400여명의 녀여친들이  
군현명사적교양실전설을 풀실

을 풀어놓았던 것이다.

모내기전투작전과 지도에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힘을 냉고  
놓았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모  
내기 전투작전과 함께 농사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처해 주어야  
하는 문제를 짚어보자.

군당위원회에서는 군기동에

출선풍대, 내행에 출선풍대를 비  
롯한 선전선동력을 농업선전  
에 흥미롭게 활용해 농민들을  
제회를 세웠다. 이 제회운정은

군당일군들이 적극 경제선동의  
복지를 퀘리로 한 것이다. 군당  
일군들이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정치사업  
의 실효성을 높이기 있다는  
것을 실증증명해 주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  
부임군들이 예술선동을 위한 준  
비사업에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예술선  
동활동을 벌리는 기본부적이 농  
장원들을 보다 각성시키고 분발  
시킬때에는 파악해 주어야  
하는 종목들이 그들의 심금을 열  
마나 뜨겁게 웃렸다는 것은  
그후 주민들은 새차게 일이 어떤  
진 사실이 잘 보여준다. 며칠풍  
안에 400여명의 녀여친들이  
군현명사적교양실전설을 풀실

을 풀어놓았던 것이다.

모내기전투작전과 지도에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힘을 냉고  
놓았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모  
내기 전투작전과 함께 농사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처해 주어야  
하는 문제를 짚어보자.

군당위원회에서는 군기동에

출선풍대, 내행에 출선풍대를 비  
롯한 선전선동력을 농업선전  
에 흥미롭게 활용해 농민들을  
제회를 세웠다. 이 제회운정은

군당일군들이 적극 경제선동의  
복지를 퀘리로 한 것이다. 군당  
일군들이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정치사업  
의 실효성을 높이기 있다는  
것을 실증증명해 주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  
부임군들이 예술선동을 위한 준  
비사업에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예술선  
동활동을 벌리는 기본부적이 농  
장원들을 보다 각성시키고 분발  
시킬때에는 파악해 주어야  
하는 종목들이 그들의 심금을 열  
마나 뜨겁게 웃렸다는 것은  
그후 주민들은 새차게 일이 어떤  
진 사실이 잘 보여준다. 며칠풍  
안에 400여명의 녀여친들이  
군현명사적교양실전설을 풀실

을 풀어놓았던 것이다.

모내기전투작전과 지도에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힘을 냉고  
놓았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모  
내기 전투작전과 함께 농사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처해 주어야  
하는 문제를 짚어보자.

군당위원회에서는 군기동에

출선풍대, 내행에 출선풍대를 비  
롯한 선전선동력을 농업선전  
에 흥미롭게 활용해 농민들을  
제회를 세웠다. 이 제회운정은

군당일군들이 적극 경제선동의  
복지를 퀘리로 한 것이다. 군당  
일군들이 품을 들이도록 하였  
다. 군당일군들이 마이크  
를 적절히 활용해 정치사업  
의 실효성을 높이기



#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민족의 존엄과 긍지

선군으로 장성번영하는 우리 조국이 통방의 행강국, 아시아의 로드트립 주국으로 그 위용을 온 누리에 펼치고 있는 오늘 선군민의 가슴마다에 민족적 금지와 자부심이 세 차례 풀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선군의 고귀한 윤산이 있어, 그 혁명유산을 계승하면서 제국주의의 횡포한 침략과 도전을 단호히 저지기 시민 백승의 힘과 전통을 빙립할 때 이 어가시는 경에 하는 죄고도자동차의 달릴 한 순간에 철학자 박정희는 이북군민의 일심단결에 헌신이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선군정치를 미제의 악랄한 복수책위령소통을 단호히 저지시며 온 겨레에게 만복을 가져다주는 위력한 정치. 창사운에 국애족의 정지리고 청송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의 한 종교인은 우리 공화국의 선군정치에 의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살기 바라는 겨레의 담원이 풀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이북에서는 평도자와 민중이 하나의 사랑과 뜻으로 혼연일체를 이루고 그 위력을으로 전진하고 있다. 충대칠학을 확립하고 인민군대를 주역 군으로 내세운 이북은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민족적 전선에서 세계를 경주시킬 놀라운 기적만을 창조하고 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역사의 오갖 시련과 난관을 파ぱ히 해치며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이 탄생한 선군령장을 둘러 모시 어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굳건히 저지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선군정치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정치인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반동들의 극진한 정치적 압박과 경제봉쇄, 군사적 위협에 퇴적정에 탈하고 있는 첨예한 정세 속에서도 평도자와 천민군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외세의 간섭과 전쟁 맥동을 막고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민족의 힘에 경애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선군정치를 미제의 악랄한 복수책위령소통을 단호히 저지시며 온 겨레에게 만복을 가져다주는 위력한 정치. 창사운에 국애족의 정지리고 청송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의 한 종교인은 우리 공화국의 선군정치에 의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살기 바라는 겨레의 담원이 풀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이북에서는 평도자와 민중이 하나의 사랑과 뜻으로 혼연일체를 이루고 그 위력을으로 전진하고 있다. 충대칠학을 확립하고 인민군대를 주역 군으로 내세운 이북은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민족적 전선에서 세계를 경주시킬 놀라운 기적만을 창조하고 있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정세언론가들은 경에 하는 원수님의 탄생한 선군정치와 특출한 수호의 신미경을 점쳐보이고 있는 이북은 그야말로 존엄의 왕국이다.

서울의 한 교수는 정세토론회장에서 오늘 가장 힘있는 민족으로 뛰어난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두고 김정은시대는 김정일시대의 흔속이며 계승이라고 적발하였다.

비밀하고 투출한 평도실력을 위에 한 장군의 선군정치를 그 대로 계승해 나가서는 경에 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공화국이 그 어떤 제국주의 강도로 할부로 떠나면 높이 치우친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두고 김정은시대의 흔속이며 계승이라고 적발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이 박근혜역도가 제국정에 팔려나오게 된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공화국이 그 어떤 제국주의 강도로 할부로 떠나면 높이 치우친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두고 김정은시대의 흔속이며 계승이라고 적발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역도는 제국정에 팔려나온 것은 진짜로 남의 재산이다.

